

## 특집2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성화 방안

# 남한산성 등재사례와 활성화 방안<sup>1)</sup>

이수진 \_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1.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1972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부동산 유산을 말한다.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남한산성을 포함하여 총 12건이 지정되어 있으며, 남한산성의 등재로 인하여 경기도는 총 3건(수원화성, 조선왕릉(40기 중 31기), 남한산성)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표1〉 국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구분	등재유산	등재시기	지역
1	석굴암 · 불국사	1995년	경북
2	해인사 장경판전	1995년	경남
3	종묘	1995년	서울시
4	창덕궁	1997년	서울시
5	수원화성	1997년	경기도 수원시
6	경주역사유적지구	2000년	경북
7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유적	2000년	전북 · 전남 · 인천시
8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년	제주도
9	조선왕릉	2009년	경기도 · 강원도 · 서울시
10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	2010년	경북
11	남한산성	2014년	경기도
12	백제역사유적지구	2015년	충남 · 전북

자료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 (<http://whc.unesco.org/>)

1) 2014년 경기연구원 보고서(남한산성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 내용을 일부 발췌, 정리하여 재작성한 것임



〈표2〉 유네스코 세계유산(2014년 7월 기준)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자연유산 (Natural Heritage)	복합유산 (Mixed Heritage)
	유적, 건축물,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장소 등	생물학적 군락, 지질학적 생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서식지 등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동시에 충족하는 유산
총 1,007건	779건	197건	31건

자료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 (<http://whc.unesco.org/>) ;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세계유산 등재기준은 완전성, 진정성 및 탁월한 보편적 가치이다. 모든 유산은 '완전성(Integrity)'을 가지고, 등재 세 부기준 i-vi에 해당되는 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을 지녀야 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녀야 한다.

- 완전성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나타냄에 있어 필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원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특징 및 과정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이며, 개발·방치에 따라 훼손되지 않았는지 등을 나타낸다.
- 진정성 :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진실되고 신뢰성 있게 표현되어야 한다.
  - 형식과 디자인
  - 위치와 환경
  - 소재와 내용
  - 언어와 여타 형태의 무형유산
  - 용도와 기능
  - 정신과 감성 및 기타 내부 및 외부 요인
  - 전통, 기법, 관리 체계
- 국가의 경계와 상관없이 현재와 미래세대의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중요하고 특별한 문화적·자연적 가치를 말한다.

〈표3〉 등재 세부기준 및 남한산성 등재 신청 기준

구분	기준	세부지침	예제
문화유산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해야 함	인도 타지마할
	ii	오랜 시간 동안 또는 세계의 어떤 문화지역 안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기념비적 예술, 도시계획 또는 조경설계의 발전에 관한 인간적 가치의 중요한 교류를 보여주어야 함	독일 쾰른 대성당
	iii	문화적 전통, 또는 살아있거나 소멸된 문명에 관하여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함	프랑스 몽생미셀



자연유산	iv	인류역사의 중요한 단계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 건축적 또는 기술적 총체, 또는 경관의 탁월한 사례이어야 함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v	문화 또는 특히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충격을 받아 취약하게 되었을 때의 환경과 사람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전통적인 정주지, 토지 또는 해양 이용의 탁월한 사례이어야 함	이탈리아 베니스
	vi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을 보유한 사건 또는 살아있는 전통, 사상, 신념, 예술적·문화적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중국 만리장성
	vii	최상의 자연현상이나 뛰어난 자연미와 미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포함해야 함	케냐 국립공원
자연유산	viii	생명의 기록, 지형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지질학적 진행과정, 또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학적 측면의 중요 특징을 포함하여 지구 역사상의 주요 단계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어야 함	한국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ix	육상, 담수, 해안 및 해양 생태계와 동식물 군집의 진화 및 발전에 있어 생태학적, 생물학적 주요 진행과정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이어야 함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x	과학이나 보전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가치가 탁월하지만 현재 위협받고 있는 종을 포함한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큰 자연 서식지를 포괄해야 함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제도

자료 :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 (<http://whc.unesco.org/>) ;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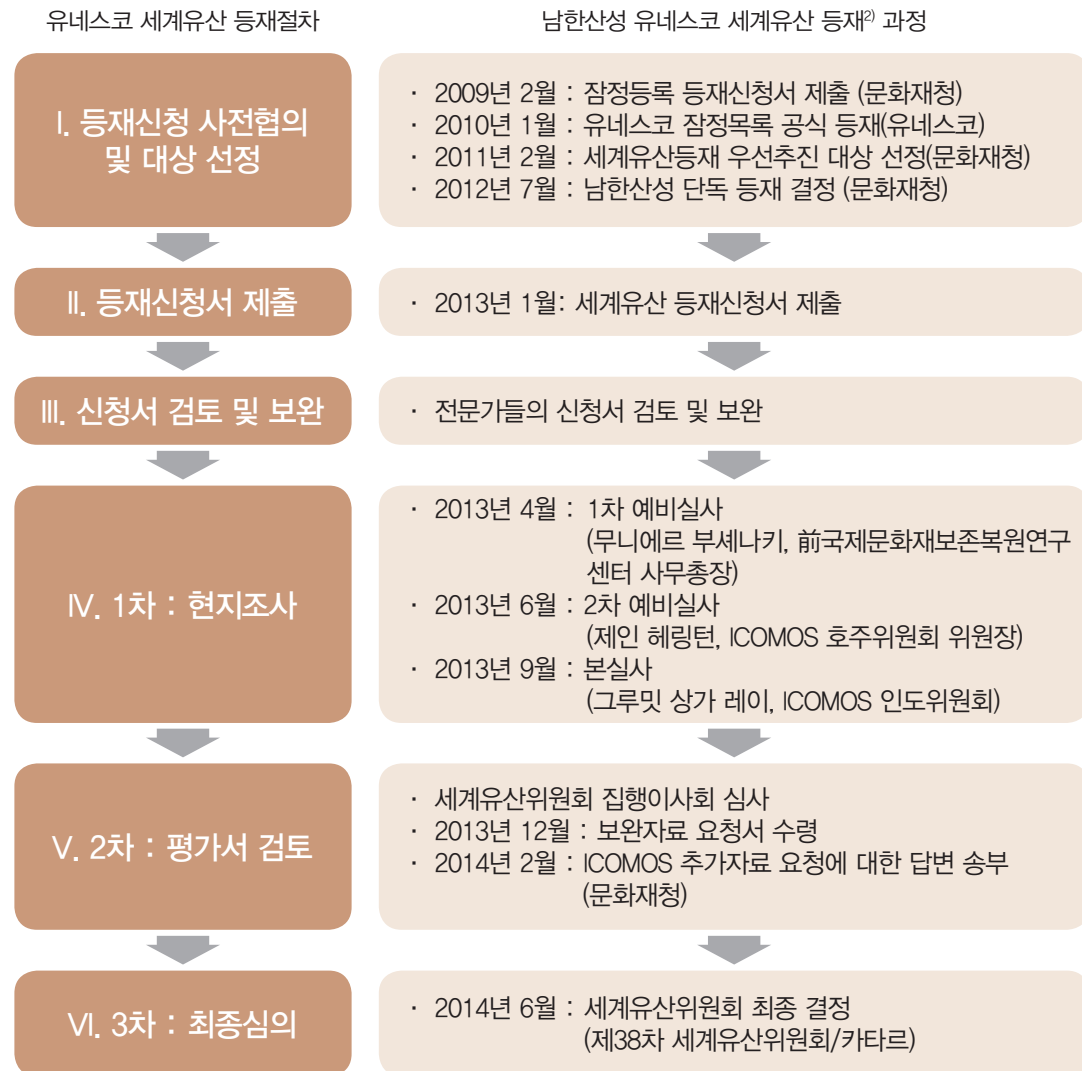
## 2.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현황 및 의의

남한산성은 2014년 6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2009년 문화재청에 의해 등재신청이 이루어져 유네스코 잠정목록 공식 등재 이후, 전문가들의 현지조사를 통해 등재 심의·검토되고, 2014년 6월 22일 카타르 수도인 도하에서 개최된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 등재가 확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11번째이자, 경기도에서 수원화성(1997년)과 조선왕릉(2009년)에 이어 3번째로 등재되는 것으로, 세계유산 기준 열 가지 중에서 (ii) 특정 기간·지역 내 인류 가치의 중요한 교류의 증거, (iv) 인류 역사의 중요한 발달 단계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에 부합된다고 여겨지고 있다(남한산성은 등재기준 ii, iv, vi으로 등재신청을 하였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 의해 ii와 iv의 기준 충족을 평가받음).

등재기준 ii의 경우, 남한산성은 국제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 무기 발달과 축성술이 상호 교류한 탁월한 증거이고, 조선의 자주·독립의 수호를 위해 유사시 임시수도로 계획적으로 축조된 유일한 산성도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등재기준 iv의 경우, 남한산성은 험한 지형을 활용, 성곽과 방어시설을 구축함으로써 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축성술의 시대별 발달단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완전성의 경우, 남한산성 OUV 제반 구성요소는 핵심 지대에 포함되어 적절하게 잘 보존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성곽을 둘러싼 지역은 모두 유산의 배후 지역

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완충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 및 단일 민간 전담기구를 통해 보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진정성의 경우, 남한산성은 자연 지세, 건축 구조,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진정성을 확보하고 특히 성곽과 산성 도시는 진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충분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구성 요소로 갖고 있다는 점과 역사적 구성 요소가 다양한 사료에 의해 그 진정성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되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절차 및 남한산성 등재 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재 후 만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등재신청 가능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의의는 크게 3가지(국가적 차원, 경기도 차원, 남한산성 자체)로 나뉘볼 수 있다. 우선 국가적 차원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유산이 세계적으로 탁월하고 세계가 함께 보존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고,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세계문화유산 확대를 통한 국가적 위상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경기도 차원으로 살펴보면, 도내 3건의 세계유산(수원화성, 조선왕릉(40기 중 31기), 남한산성) 보유로 인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경상북도(석굴암·불국사, 경주역사지구,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와 더불어 국내에서 최다 세계유산을 보유한 광역 자치단체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기도 내 역사문화벨트 구축할 기회가 생기며 국제적 역사문화 관광목적지로 인지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남한산성 자체로만 살펴보면, 그동안 주목받았던 남한산성의 휴양·휴식공간의 면모에서 역사 문화적 장소로 이미지 전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남한산성에 대한 기존 인식 중 하나는 단순히 먹고 즐기는 유원지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세계유산 지정으로 인해 남한산성의 역사 문화적인 공간적 특성이 강조되고, 또한 지역사회의 자긍심이 함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4〉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의의

구분	의의	내용
국가적 차원	세계적으로 탁월하고 함께 보존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고,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재기준에 따른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국내·외적으로 좋은 홍보자원이 됨</li> <li>세계문화유산 확대를 통한 국가적 위상 강화</li> </ul>
경기도 차원	경기도는 3건의 세계유산(수원화성, 조선왕릉, 남한산성) 보유로 인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상북도(석굴암·불국사, 경주역사지구,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와 더불어 국내에서 최다 세계유산을 보유한 광역 자치단체가 됨</li> <li>경기도 내 역사문화벨트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국제적 역사문화 관광목적지로 인지도 강화</li> </ul>
남한산성 자체	그동안 부각되었던 남한산성의 휴양·휴식공간의 면모에서 역사문화적 장소로 이미지 전환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한산성에 대한 기존 인식 중 하나는 단순히 먹고 즐기는 유원지</li> <li>세계유산 지정으로 인해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적인 장소성이 강조되고, 또한 지역사회의 자긍심이 함양될 수 있음</li> </ul>



**세계유산이 지닌 국제적 홍보효과 및 관광효과로 인해  
방문객 증가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효과를 기대**



그리고 세계유산이 지닌 국제적 홍보 효과 및 관광 효과로 인해 방문객 증가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 방문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가 시사하는 긍정적 이미지로 각종 투자 및 사업을 유치하고, 사회 기반시설이 향상되어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재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5년 지역 간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경기도지역의 유발계수를 산출, IRIO(Inter-Regional Input-Output) 분석하였으며, 1) 투자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2) 이용객 소비에 의한 파급효과를 추정하였다.

투자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2014~2033년까지 총 20년간 3,892억 원의 사업비 투자를 가정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내 생산유발 효과 8,081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3,690억 원, 고용유발 효과 3,695명으로 분석되었다.

이용객 소비에 의한 파급효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효과로 인한 이용객 수 증가율 약 10% 반영하여 이용수요를 추정, 분석하였다. 이때 2013년 국민여행실태조사 당일 관광 평균지출액 근거로 이용객 소비지출액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등재 5년 후인 2018년에는 생산유발 효과 3,351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894억 원, 고용유발 효과 1,285명으로 분석되었고, 10년 후인 2023년에는 생산유발 4,739억 원, 부가가치유발 1,264억 원, 고용유발 1,818명으로 분석되었다.

### 4. 남한산성 활성화 방안

남한산성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은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과 더불어 효율적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남한산성의 지속 가능한 효율적인 보존과 함께 활용을 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유산 관광지로서의 남한산성 활성화는 국민의 관심과 역사문화의식 등을 고양하는 기본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하여 남한산성이 가지고 있는 기존 단순 유원지 이미지를 탈피하여 역사문화유산 관광지로서의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4대 전략(시설 및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및 콘텐츠, 해설 및 인력관리, 마케팅 등 기타지원), 12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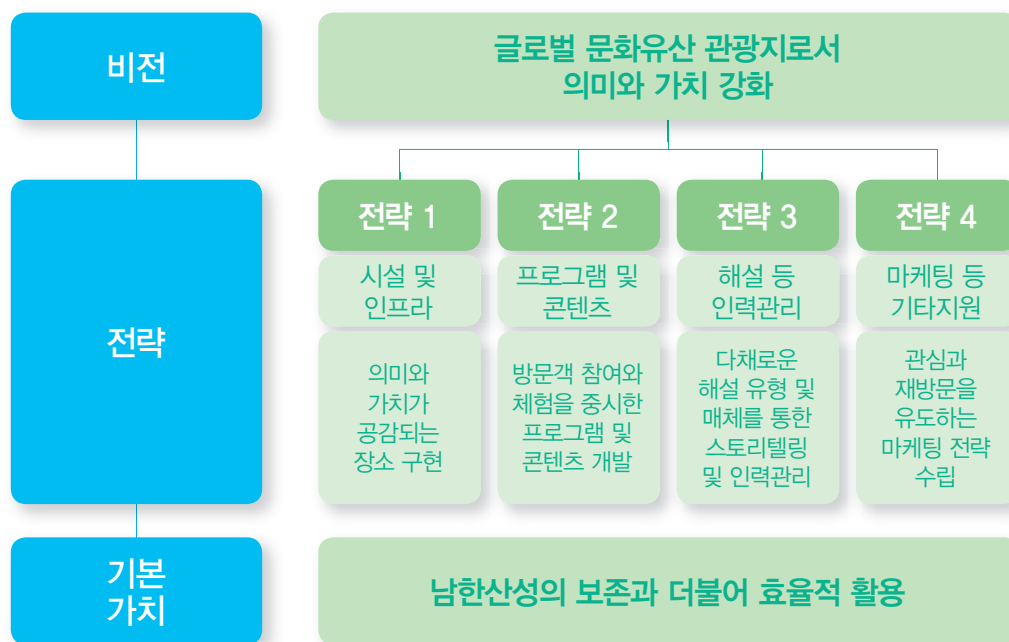
첫째, 시설 및 인프라 측면이다. 남한산성을 의미와 가치가 공감되는 장소로 구현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 1)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및 확대 : 남한산성 전시관, 종합 방문객안내센터, 한옥숙박시설, 국궁장 및 산성 서바이벌 체험장 구축 및 교통편 시스템 정비를 통해 남한산성의 다양한 가치를 소통, 활용하고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인다.

3)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재 후 만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등재신청 가능



〈표5〉 남한산성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 2) 시설관리 모니터링 : 관광수용력 관리시스템 구축, 산성둘레길 정비와 무장애 길 설치를 통해 다양한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간판정비 및 공공디자인 모니터링을 통해 안내체계와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향상시킨다.
- 3) 방문객 안전관리 : 방문객 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앱(app) 개발 및 인프라를 조성하고, 응급환자 발생 등 각종 위기 상황에 대한 응급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둘째, 프로그램 및 콘텐츠 측면이다. 남한산성에 방문객 참여와 체험을 중시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 1) 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강화 : 남한산성의 경관을 이용한 친환경 실경공연, '남한산성 인문학 콘서트', 야경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교과서 투어 및 인센티브여행상품 등을 개발하여 다양한 방문객을 유치하고,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체험관광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 2)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활성화 : 수도권에 있는 5대 산성(서울성곽, 수원화성, 북한산성, 문수산성, 남한산성) 연계상품 개발, 남한산성이 위치한 3개 시군(성남, 광주, 하남)의 통합 지역축제 기획 및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네트워크망의 범위를 확산하여 남한산성의 활용도를 높인다.





3) 콘텐츠 활용기반구축 :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남한산성에 대한 DB의 정리 및 공유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외로 남한산성 관련 정보 활용도와 접근성을 높인다.

셋째, 해설 등 인력관리 측면이다. 남한산성에 다채로운 해설 유형 및 매체를 통한 스토리텔링 및 인력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1) 해설인력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 : UNESCO 및 관광학과와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오디션을 통해 '현장배우'를 고용하는 등 남한산성 인력에 있어 다양성을 더하고, 현장실습을 통해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 2) 해설친화력 강화 : ICT 접목한 해설 도입 및 역사재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국적 오디오 가이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 3) 관련 조직 등 재정비 : 이원화된 남한산성의 조직들을 재정비하여 방문객 관리 및 만족도 제고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체제를 수립하고, 남한산성 관련 조직, 관리와 활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등 기타지원 측면이다. 남한산성에 대한 관심과 재방문을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 수립과 관련한 사항이다.

- 1) 정체성 및 인지도 강화 : 현재 개발된 남한산성 Heritage identity의 활용용도를 넓히고, 특화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마케팅 방안으로 활용하며, 공식 웹사이트 정비 및 경기도내 3개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통합마케팅을 통해 인지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 2) 방한 외국인 방문객 대상 마케팅 강화 : 외국인 방문객들을 위해 주요기관 (한국관광공사, 이코모스 등) 홈페이지에 남한산성 관련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외국인 서포터즈를 선발하여 SNS를 통해 다국어로 정보를 제공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를 실시하여 홍보를 활성화한다.
- 3) 지역민 참여 확대 : 지역 내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남한산성의 가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도모한다. ◀